

SUMMER 2018 Vol. 83

# 또 하나의 나, 우리



지구촌 아이들의 꿈  
플랜코리아





##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UN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 기구로 80년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 신뢰를 인정받아온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종교·정치·국적을 초월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억6천5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호, 교육,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생계지원, 긴급구호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입니다.

또 하나의 나, 우리 SUMMER 2018 Vol. 8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이메일. kno@plankorea.or.kr 홈페이지. www.plankorea.or.kr  
통권. 제83호 발행일. 2018. 6. 11 발행인. 이상주 발행처. 재단법인 플랜 한국위원회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22.5612  
편집. 서울커뮤니케이션 070.7633.2009



### CONTENTS

#### 04

Plan Report  
All Girls Have a  
Right to an Education

#### 10

우리는 플랜 가족  
플랜에 대한 모든 것!  
Talk about Plan

#### 16

지구촌을 간다  
청소년들에게 선물한 밝은 미래  
현대드림센터 필리핀

#### 22

지구촌을 간다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 28

고마워요 플랜  
베트남 타이 응우옌에 찾아온  
아름다운 10년의 결실

#### 34

플랜톡

#### 38

후원자 공간

#### 06

아주 특별한 만남  
지구촌 아동 돕기  
플랜 아트 마켓

#### 12

사랑은 계속됩니다  
현수네 가족에게  
‘진짜’ 우리 집이 생겼습니다

#### 18

지구촌을 간다  
단 하나의 생명도 소외 받지 않도록  
모잠비크 보건소

#### 24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나를 기다리는 그 곳이  
바로 행복입니다

#### 30

고마워요 플랜  
사랑 받고 사랑하는 법

#### 36

Plan Board

#### 39

Enjoy Plan

#### 08

특집  
어린이와 세상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세요

#### 14

사랑은 계속됩니다  
일성건설과 함께  
아이들의 푸른 꿈을 응원합니다

#### 20

지구촌을 간다  
내일의 희망을 짓고  
웃음을 나눠요

#### 26

꿈꾸는 에세이  
제 이름은 구구입니다

#### 32

꿈꾸는 아동편지

#### 37

플랜툰

#### 40

플랜 소식

# ALL GIRLS HAVE A RIGHT TO AN EDUCATION

“제 이름은 파투마입니다.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유년기와 사춘기 대부분의 시간을  
케냐 난민캠프에서 보냈습니다.  
난민캠프에서의 삶은 힘들었지만  
학교에 다닌 덕분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장학금을 받았고,  
현재 토론토 대학교에서 보건학을 공부하며  
캠프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 EDUCATION



위기에 처한 35개 국가에서  
7천 5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여아들의 인구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남아들의 인구보다  
2.5배 더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은  
평균적으로 26년간 난민이나  
내부 실항민으로 살아갑니다.



교육은 유해한 일상으로부터  
소녀를 보호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소녀들은  
교육받은 소녀들보다  
조혼할 확률이 5배 높습니다.

파투마는 가난, 폭력, 분쟁, 자연재해 등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여아들을 위해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녀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 자금 중 교육에 사용된 자금은 단 2%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은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발생시 가장 먼저 중단되었다가 가장 마지막에 재개되는 것 역시,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특히 소녀들은 어리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년들보다 더 먼저 교육의 권리를 박탈당한 뒤 강제 결혼과 조기 임신 등의 또 다른 폭력과 착취로부터 고통 받았습니다.

플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촌 1억 명의 여자아이들이 배우고, 이끌고, 결정하고, 경제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5년 간의 활동 목표를 세우고, 'Because I am a girl'과 같은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 여아들을 포함한 가장 약하고 소외된 그룹을 지원하여 교육 받을 기회를 늘리고 심리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성별 관점을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여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직접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파투마와 함께 올해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위기에 처한 여아들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구체적인 예산 집행과 지원 확대가 이뤄지도록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교육은 소녀들을 위한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교육을 위한 투자는 소녀와 여성들을 비롯한 지역 사회와 국가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여자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 받고 미래의 리더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 지구촌 아동 돕기 플랜 아트 마켓

에버랜드 장미원에서 나눔으로 하나되는 플랜 아트 마켓이 열렸다. 재능을 기부하고 마음을 더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개도국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



푸르른 녹음이 짙어가던 5월의 어느 날, 지구촌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다. 플랜코리아와 에버랜드, 라보라토리오브 아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구촌 아동 돕기 플랜 아트 마켓을 주최하고, 수익금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개도국 아동들에게 안전한 놀이시설을 지원해오고 있다.

에버랜드 장미원에서 개최된 플랜 아트 마켓에서는 즐겁게 나눔을 체험하고 아기자기한 핸드메이드 제품들도 구입할 수 있다. 지난해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개최되면서 놀이공원을 찾은 나들이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그 결과 플랜코리아와 에버랜드의 정기 연례행사로 자리 잡아 올해 3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나눔 체험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메인 이벤트로 진행된 플리마켓에서는 지난 1,2회 행사와 마찬가지로 약 30여 팀의 셀러들이 참여해 다양한 작가들의 일러스트레이션 소품과 감각적인 수공예 작품들을 선보이며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플리마켓에 이어 플랜코리아 부스에서도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휴일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찾은 가족들은 지구촌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캐처 만들기, 개도국 여자아이들에게 희망 메시지 보내기, 나눔 타투 붙이고 SNS로 응원하기 등에 적극 참여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 플리마켓에서 물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스탬프 릴리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으면서 현장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홍보대사들의 활약도 빛났다. 김대희, 홍인규, 권재관, 한윤서, 서인아 등 플랜코리아와 함께 해오고 있는 JDB엔터테인먼트 소속 개그맨 홍보대사들은 행사에 기부하기 위해 직접 준비해온 개인 물품들을 판매하며 더욱 즐거운 나눔을 실천했다. 방문객들은 홍보대사들의 추억이 담긴 옷, 가방, 모자, 신발 등을 착한 가격에 구입하는 동시에 전세계 아이들을 돕는 나눔 활동에 동참하는 기회도 누렸다.

플랜코리아는 에버랜드와 함께 물이 부족해 식수난을 겪는 개도국 지역에 우물과 수도시설을 건설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지난 행사의 수익금으로 건립한 개도국 놀이시설 지원 사업 관련 사진이 함께 전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플랜 아트 마켓의 수익금 역시 지구촌 아동들에게 놀이시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얼마 전 플랜코리아는 홍보대사들과 베트남 끈뚨 지역을 찾아 Joy&Dream 캠페인을 진행하고, 플랜 아트 마켓 수익금으로 학교 환경 개선 작업과 놀이터 시설 개보수를 실시했다.

플랜 아트 마켓은 올 가을 에버랜드에서 다시 풍성한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나눔의 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플랜코리아 페이스북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확인 가능하다.

# 어린이와 세상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세요

어린이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플랜코리아의 '연결고리' 반지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기적입니다.

당신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실 때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 어린이들이 꿈을 갖고 세상과 연결될 기회를 선물해주세요.

연결고리 캠페인 참여하기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배우 다니엘헤니



### 어린이가 중심인 세상

'연결고리'의 고리는 세상과 어린이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고리의 중심에 위치한 어린이 모양처럼 세상의 중심에는 항상 어린이가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가 보호받는 세상

'연결고리'의 한쪽은 누구나 착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어린이가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어린이가 스스로 바라는 세상

어린이는 스스로 삶을 결정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의 '연결고리'를 선택하는 순간 그 고리로 연결된 어린이는 자신의 미래를 바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 어린이와 세상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을 통해 아동결연을 신청해주시면 연결고리 반지를 드립니다. (2종 중 택1)



캠페인을 통해 새롭게 아동결연을 약속해주시는 분들에게 아동결연의 증표로 연결고리를 보내 드립니다



이미 아동결연을 진행 중인 플랜코리아 정기후원자분들 중 국내아동지원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린이에게 손을 내밀어주신 분들에게도 연결고리를 보내드립니다.

# 플랜에 대한 모든 것! Talk about PLAN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플랜코리아 사무실에도 따뜻한 온기가 듬뿍 퍼졌습니다.

이번 후원자 모임에서는 'Talk about PLAN' 이라는 주제에 맞게 플랜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원자님들과 함께 플랜의 해외아동 결연 절차와 후원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해외아동 결연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심층 탐구하고, 후원 아동이 아닌 후원자가 직접 성장보고서를 만들거나 행복한 꿈을 가져다 준다는 드림캐처를 제작해보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이벤트로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플랜 현장을 소개하는 시간에는 미얀마에 1년간 파견돼 생활했던 플랜코리아 직원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며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후원 현장의 또 다른 모습들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에 후원 아동을 직접 만나러 갔던 후원자의 이야기, 양친회로부터 받은 나눔을 잊지 않고 16년간 플랜코리아의 후원자로 함께하고 있는 후원자의 이야기 등 플랜에 대한 생생하고 진솔한 이야기가 오가면서 깊은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 “항상 후원 아동들에 대한 보고서만 받아보았을 뿐 아이들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생각은 미처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저의 성장보고서를 만들어 후원아동에게 보내주게 되어 무척 새롭고 의미 깊었어요.”  
-박노을 후원자

●● “진작에 후원자모임에 와볼 걸 하고 후회 될 만큼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나의 후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후원 현장의 이면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아이들을 후원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박은영 후원자

●●● “후원자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그만큼 플랜코리아는 저에게 특별한 곳이거든요. 후원을 시작한 지 1년 즈음 되었을 때 후원아동을 직접 만나고 온 경험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게 하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후원아동도 꼭 만나러 가보고 싶어요.”  
-송성근 후원자

나의 하루를 통해 먼 나라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알아가는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 아낌없이 사랑하고 나눌 줄 아는  
따뜻한 후원자님들 덕분에 여느 때보다 빛났던 만남이었습니다.  
이번 모임의 참가비도 플랜의 여아권리신장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에 전액 기부되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바쁜 나날들 속에서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현수네 가족에게 '진짜' 우리 집이 생겼습니다

66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99

아빠가 일하는 비닐하우스 농원 한 칸에서 혼자만의 외로운 꿈을 꾸던 아이.  
플랜코리아의 위기아동지원 캠페인을 통해 소개된 '현수(6세/가명)'를 기억하시나요?  
작고 위태로운 비닐 집이 온 세상 전부였던 현수에게  
드디어 깨끗하고 튼튼한 집이 마련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태어난 현수는 친구 한 명 없는  
외딴 동네에서 부모님을 유일한 친구로 삼아 자라왔습니다.  
여름에는 지독한 폭염과 벌레가,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와  
공공 언 수도가 아이의 쓸쓸한 하루를 더 고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사계절 내내 든든하게 지켜줄  
집이 생겼고, 반가운 친구들도 생겼으니까요.

플랜코리아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현수네 가족을 위해 지난해 말 김포시, 김포아이사랑센터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긴급 주거비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주거지 구입과  
현수의 언어치료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현수네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집의 조건을 결정했습니다. 먼 곳에서 시집와서 외로움에  
눈물을 삼키는 엄마의 친구가 있는 곳, 엄마와 아이들이 걱정되는  
아빠가 언제든 달려올 수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수의  
초등학교 입학할 수 있는 곳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수와 가족들에게 딱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현수가 사는 지역 내 행정기관에서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을 돕는 전세임대주택 선정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지원했습니다.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도 힘을 모아 좋은 집이  
나오면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벽지와 장판을  
교체할 필요 없이 쾌적하면서도 방이 세 개나 되는 좋은 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위의 많은 도움 덕분에 절약된 예산으로  
냉장고, 이불, 식탁 등의 살림살이들도 순조롭게 마련했습니다.  
현수를 위한 작은 방에도 침대와 책상, 장난감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늘 혼자였던 현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래보다 조금 더딘  
언어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꾸준히 치료도 받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유치원에서 새로 사귀 친구들과  
내년에는 같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다시 만난 현수의 얼굴에는  
푸르른 여름처럼 싱그러운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현수는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자랄 것입니다.

이번 캠페인에 도움을 주신  
김포시청 김포아이사랑센터,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긴급 주거비는 현수에게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플랜코리아는 캠페인을 통해 전달된  
후원자님들의 희망이 현수의  
가족 안에서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파트너 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 일성건설과 함께 아이들의 푸른 꿈을 응원합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플랜코리아가 일성건설 임직원들과 아름다운 뜻을 모으고  
지역아동센터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플랜코리아와 일성건설은  
'푸른꿈 자람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아동 센터 아이들이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처럼, 스물 아홉 명의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더 나아가 아이들의  
부모님과 센터 직원분들까지 포함한  
백여 명을 위한 멋진 실천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무척 뜻 깊었습니다.”

-조경민 주임

“진심을 담아 꼼꼼하게 신경 써서  
청소했어요.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따뜻한 장소가 될 수 있게  
계속 돕고 싶어요.”

-김희진 주임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늘 보람찬 것  
같아요.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듣고 봉사활동을 하니  
그 보람이 두 배 이상이었어요.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유헤님 사원

“단발적이고 소모적인 봉사활동보다는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플랜코리아와 인연을 맺고 '푸른꿈 자람터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연코 마음의 깊이가  
남다른 시간이었고, 많은 임직원이  
가슴으로 임하였기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손준혁 사원

이번 봉사활동이 진행된 목동의 지역아동센터는 다소 오래되고  
낡은 주택들 사이에 자리하고, 골목길 양 끝에 8차선 도로와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대형 덤프트럭이  
오가느라 각종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의 장판과 벽지는 지난 8년간 한 번도 교체된 적 없이  
누렇게 바래고 찢어진 상태였으며, 바닥 일부에는 꺼져거나  
무너진 곳들도 생겨서 아이들이 번번이 걸려 넘어지기  
일췌었습니다.

플랜코리아와 일성건설 임직원들은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네 시간 여  
동안 장판과 벽지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실내 청소 및 정리를  
비롯해 학습에 꼭 필요한 책과 기자재들을 들여놓으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 센터는 한층 밝고 편안한 분위기로 변신했고,  
이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환한 표정으로 함께 기뻐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일성건설과 이번 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향후  
지역아동센터 두 곳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급식 지원 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우리의 사랑을 전하면서,  
세상 모든 아이들이 소외 받지 않고 건강하게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도움을 주신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구촌을 간다

## 청소년들에게 선물한 밝은 미래, 현대드림센터 필리핀

필리핀 청소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플랜코리아와 현대자동차가 함께 추진해 온 '현대드림센터 필리핀'이 드디어 개관했다. 현대드림센터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원만하게 자립하고 생계 유지와 자기 계발을 위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을 통해 자동차 정비 기술을 알려주는 자동차 정비교육센터다.

### 누구든지 꿈꿀 수 있는 직업훈련학교

필리핀 라구나주 칼람바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차량출고 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개관식에는 현지 정부 및 현대드림센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현대드림센터 필리핀의 개관을 축하하며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현대드림센터는 경제적인 이유로 고등학교 이상 진학하지 못한 필리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이 가능한 수준의 자동차 정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질의 자동차 정비 교육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 기술 훈련 과정을 수료한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

###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진행되는 교육과정

플랜코리아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2013년 가나에 첫 현대드림센터의 문을 연 이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도 순차적으로 드림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기회가 제한된 청소년에게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현대드림센터 필리핀 개관을 위해 플랜코리아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필리핀 라구나 주 칼람바 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정비센터 내에 자동차 정비 교육이 가능한 강의실 두 개를 구축하고 실습장 확충 공사를 진행했다. 실습교육의 효율을 높이고자 교보재와 기자재를 추가로 마련했으며, 필리핀 기술교육개발부 인증 정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과과정도 개정했다. 또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시에 신규 강사 채용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필리핀 현대드림센터는 교육생의 최종학력, 정비직업교육 이수 경력 등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등 3개 코스로 각 6개월간 자동차 정비기술, 고객응대 서비스, 보증담당, 사내강사 등 여러 분야의 직업교육을 진행한다.

###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그 날까지

이번 사업을 통해 플랜코리아와 현대자동차는 연간 90명의 필리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과 더불어 교육생 전원에게 기숙사를 지원한다. 향후 3년 동안 청소년 270명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80% 이상의 교육 수료생이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물론 현대자동차 인턴십 및 현지 자동차 딜러점에서의 취업을 추천하는 등 교육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도울 예정이다.

빈곤한 환경과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고  
내일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제는 절망 대신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단 하나의 생명도 소외 받지 않도록, 모잠비크 보건소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는 일이 마치 기적처럼 간절했던 이들을 위해 플랜코리아와 코이카가 힘을 모아 매일이 기적 같은 날들을 만들었다.

### 의료 환경 개선이 절실했던 모잠비크

플랜코리아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이 진행해 온 모잠비크 모자보건 강화 사업이 3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건강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지난 5월 9일에는 모잠비크 인함바네주 잔가모군 내 보건소 두 곳의 완공을 축하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도 열렸다. 모잠비크는 코이카 연구를 통해 모자보건 프로그램이 시급한 국가로 선정되었을 만큼 정부의 보건시스템이 열악하고 산모들을 위한 분만 환경이 충분하지 않았다. 의료 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의료 인력의 수 및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한 임신과 출산이 이뤄지지 않아 산모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영유아 사망률도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랜코리아는 코이카와 함께 2015년 6월 모잠비크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보건환경 개선 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도에는 허리케인의 피해로 사업이 잠시 중단되며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뜻을 모은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의지와 수고 덕분에 다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었다.

### 깨끗하고 안전한 보건 서비스 시작

어느덧 3년을 짝 채우고 올해 연말 사업 종료를 앞둔 모잠비크는 그 동안 크게 발전해왔다. 플랜코리아와 코이카는 낙후된 기존 보건소를 개보수하고 보건 기자재들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앰بول런스도 제공됐다. 새로운 지역 보건소 두 곳도 새롭게 문을 열었다. 보건소 건립을 통해 잔가모군 내 산모 4,878명과 보건교육가 25명, 보건요원 52명 및 의료인력 30명 등 많은 지역주민이 최소한의 기초 보건의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지역 주민들을 건강하게 변화시킨 노력

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보건 교육가와 보건 요원들을 선발하고 교육도 실시했다. 보건교육가들은 방문 키트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마을 별 산모연락체계를 구축해 보건교육가와 보건요원이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보건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파악한다. 지역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된 다양한 캠페인은 주민들의 일상을 건강하게 변화시켰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성 보건 및 권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현지 주민들이 익숙한 상황들을 연극으로 자연스럽게 연출하여 거부감 없이 교육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말라리아 예방, 산전·산후 검사 참여, 5세 이하 영유아 예방접종의 중요성, 올바른 모유수유 등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역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플랜코리아와 코이카는 앞으로도 보건 인력을 더욱 확대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보건의로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예정이다.

모잠비크 주민과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모가 되는 길이 아프고 두렵지 않기를, 세상의 빛을 본 귀한 생명 모두가 건강하게 축복 받으며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내일의 희망을 짓고, 웃음을 나눠요!

매년 Joy&Dream 캠페인을 통해 개도국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JDB엔터테인먼트 소속 개그맨들이 올 여름은 베트남 끈뚨지역을 찾아 아이들의 꿈을 뜨겁게 응원했다.

베트남 내 극빈 지역 중 한국인 끈뚨 지역 콘처 마을은 호치민에서 국내선을 타고 1시간 이동 후 차로 2시간을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위태로워 보이는 녹슨 철제다리를 건너야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낮고 허름한 민가들을 지나 학교에 도착하니 100여 명의 아이

들이 멀리서 찾아온 낯선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 만남의 어색한 순간도 잠시, 다양한 개인기와 유머로 큰 웃음을 선사한 김대희, 김준호, 박소영 홍보대사들의 노력 덕분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금새 시원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마당에서 한바탕 줄다리가 시작되었다. 하염없이 끌려가는 줄에 매달려있어도, 팽팽한 긴장감 보다는 모두의 웃음이 쏟아져 내렸다. 풍선놀이, 비누방울 놀이, 특별한 것 없는 장난감들이지만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 참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4개의 교실에서 10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콘처 초등학교는 울타리와 교문이 없어서 동물이나 외부인이 침입하기 쉽고, 지나가는 차들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운동장은 지대가 낮은 데다가 흙밭이어서 우기에 아이들의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밭이 되기 일쑤였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김대희, 김준호 홍보대사는 벽돌과 시멘트로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고, 나무를 심어 친환경적인 학교 분위기를 완성했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 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 공사에도 참여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실 한편에서는 박소영 홍보대사는 페이스페인팅 솜씨를 발휘해 아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스마일 감자와 맛과 영양까지 두루 챙긴 잡채, 아이들에게 늘 인기만점인 주먹밥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었다. 놀이터 건립지원금을 후원한 에버랜드에서 전달한 장난감과 김대희 홍보대사가 직접 준비해온 아동복은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

작은 벽돌 한 장을 나르고,  
얼굴에 예쁜 무지개를  
그려주었을 뿐이지만,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그 웃음덕분에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66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늘 고민돼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공부해야 하는 것 같아요.  
 99

매번 봉사활동을 가기 전 전미선 홍보대사의 고민이 깊어진다.  
 어느덧 플랜과 함께 떠나는 여섯 번째 여정이지만,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 차오른 채 더욱 분주해진다.

전미선 홍보대사가 베트남 끈똌 지역의 작은 마을, 닥코이를 찾았다. 산골 깊숙이 자리한 닥코이 마을은 인구의 90%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 대부분이 빈곤선 이하로 살아가는데다가, 소수민족 아이들은 베트남어를 잘 하지 못해 학업 유지에도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

소수민족이 많은 이 지역 아이들을 위해 베트남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치원이나 학교의 시설들이 지원을 받을 만큼 정비돼있지 못해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지원이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유치원 역시 정부로부터 소수민족 아이들을 위한 영양식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주방시설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동안 봉사활동을 다니며 영유아들을 위한 교육과 성장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던 전미선 홍보대사는 닥코이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환경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영양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주방과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될 예정이다.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닥코이 마을의 유치원에는 서른여명의 아이들이 노란색 교복을 예쁘게 차려 입고 전미선 홍보대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풍선 하나만으로도 교실은 금새 화기애애해졌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좋을지 계속 고민하느라 목직했던 전미선 홍보대사의 마음도 풍선과 함께 가벼워지는 순간이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영양 가득한 밥 한끼를 선물하고 싶었던 전미선 홍보대사는 두부와 참치로 전을 부치고, 사랑을 듬뿍 담은 주먹밥을 만들어 특별한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간식으로 달콤하고 쫄깃한 호떡도 준비해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작고 앙증맞은 입에 호떡이 쏙 들어갈 때마다 행복한 표정을 짓던 아이들, 마음을 나누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전미선 홍보대사는 아이들과 색칠 공부, 점토와 비누방울 놀이 등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와 그림으로 교실도 예쁘게 꾸며주었다. 아이들을 위해 미리 챙겨간 예쁜 옷들도 선물했다. 아이들에게 맞는 사이즈와 색깔을 찾아가며 직접 입혀주던 그녀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옷을 품에 고평 안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밝고 기운차 보였다.

**아이들과 마주했던 짧은 이틀이었지만,  
 함께 보낸 시간만으로는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더 크고  
 깊은 마음을 나눴다.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가슴 벅찬 나눔의 행복이,  
 바로 여기 우리 안에 있다.**





나를 기다리는  
그 곳이  
바로 행복입니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잠시라도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었던 순간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저는 중국 북경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귀국 하던 날에 우연히 플랜이라는 단체를 접하게 되었고, 중국에서도 플랜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더 반가워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아직까지 플랜의 수혜국이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많이 의아했지만, 제가 보지 못했던 중국의 또 다른 지역을 이번에 직접 다녀오고 나서야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후원 아동을 만나러 가던 날, 북경에서 국내선을 타고 방문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거점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플랜 중국 사무소 직원을 만나 버스를 타고 다시 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총 다섯 시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이동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차로 한 시간을 더 이동한 뒤에야 후원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안쓰러웠습니다. 별도의 급식소가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터라 아이들이 양 손에 양철그릇을 하나씩 들고 학교 운동장에 두 줄로 길게 서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그릇에 담기는 것은 달랑 반찬 두 가지에 흰 쌀밥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아이 한 명당 급식비용을 물어보니 한국 돈으로 약 650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미 상당한 노력을 통해 개선된 정도인 것이고, 도심과는 워낙 동떨어진 마을이다 보니 교통이 안 좋고 물자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힘겨운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 저의 초등학교 시절 급식장면이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한창 이어지던 중, 학교 측에서 저의 후원 아동과 부모님을 데리고 와주었습니다. 한국어름으로 '이귀진'이라고 하는 귀여운 여자아이였는데, 처음 만난 먼 나라 이방인의 모습에 쑥스러웠던지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인사를 해보라고 계속 설득하자 그제서야 조그마한 목소리로 "니 하오" 하며 제게 말을 걸어주던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저 역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미리 준비해간 과자와 문구 선물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끝난 뒤에는 후원 아동과 함께 수업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서 대학생이 되어 다시 듣는 초등학교 수업은 어떻게 하는 호기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또박또박 교과서를 읽는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가슴에 울릴 만큼 깊은 인상이 남았던 순간입니다.

후원 아동과의 만남은 저에게 참 뜻 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보기에 좋은 곳, 멋진 곳, 화려한 곳, 인기가 많은 곳만이 여행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은 곳, 멋지지 않은 곳, 화려하지 않은 곳, 인기가 없는 곳일지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는 곳이라면 바로 거기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들이 앞으로 제 인생의 활력소가 되어 좋은 기운을 계속 불어넣어 줄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을 얻었습니다.**

**후원 아동을 잘 만나고 올 수 있도록 현지에서 함께 동행해주신 플랜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면서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글/사진. 김지정 후원자



66

# 제 이름은 구구입니다.

99

안녕하세요,  
저는 짐바브웨에 살고 있는 열 살 구구예요.  
엄마와 아빠 두 분 모두 돌아가셔서  
5년째 플랜의 후원을 받으며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물을 데울 불을 피우고  
플랜이 만들어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덕분에 몸이 아프지도 않아요.

플랜에서는 우리 마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지어줬어요.  
학교에는 깨끗한 화장실도 생겼답니다.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영어 공부가 가장 즐겁고  
이왕이면 학교도 꼭 졸업할거예요.  
나중에 커서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를 응원해주는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플랜의 후원 아동이 되어서 행복해요!

구구처럼 35,250명 이상의  
짐바브웨 어린이들이 플랜 아동결연 사업을 통해  
후원자님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의 플랜 활동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깨끗한 식수 및  
위생 관리



보건·의료 및  
영양 공급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



교육  
개선

구구의 하루  
영상으로 만나기





## 베트남 타이 응우옌에 찾아온 아름다운 10년의 결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타이 응우옌에 사는 썬(Xinh) 이에요.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그 동안 마을이 많이 발전했고, 우리 모두 스스로 자립해나갈 준비가 된 덕분에 이제는 플랜이 마을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별은 너무 아쉽지만 도움이 더 필요한 또 다른 지역의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다니 기뻐요. 플랜과 함께 성장해온 우리의 시간, 그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베트남 타이 응우옌 사업장



### 안전하게 교육받고 즐겁게 꿈꿔요

플랜은 마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을 지어주고 교실 환경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개선해주었어요. 꼭 필요한 기자재와 참고서들을 제공받았고, 우리가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줬죠. 선생님들은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교육받았어요. 덕분에 저와 친구들이 더욱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됐어요. 출석률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플랜이 기획한 훈련 과정에 참가한 뒤 기존의 교수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과거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론과 설명에만 너무 치우쳤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학생들에게도 수업에 대해 논의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해서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요. 그 결과 학생들이 수업에 더 흥미를 보이고 활발히 참여하고 있어요.”

- 트란 티트, 초등학교 교사



###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껴요

플랜은 부모님들에게 61개의 육아 모임을 설립하도록 지원해주었어요. 부모님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아동 양육과 훈육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아동 발달 및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부모님들은 예전보다 우리들을 더 세심하게 돌봐주고 함께 재미있게 놀아주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줘요.

“이 모임에 참여한 이후로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을 배웠어요. 제가 맡은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어서 딸과 더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같이 책을 읽을 때면, 딸에게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해요. 딸이 이제는 스스로를 표현하는 데 자신감이 생겨서 전 아주 행복해요. 학교에서도 잘 적응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 라 후엔 티, 어머니



### 안정된 경제 활동으로 생활이 나아졌어요

플랜에서 마을 내 2,400여 가구를 지원하면서 가축과 농작물 등 농업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예상치 못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홍수, 산사태, 가뭄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을 알려주는 마을 지도 제작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활동 덕분에 생산성은 점점 높아졌고 마을의 빈곤율은 2002년 27%에서 2014년 9.06%로 낮아졌어요. 많은 가족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었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더 투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기술 덕분에 돼지가 더 빨리 자라요. 돼지 배설물은 농작물에 유기질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돼지와 농작물이 잘 자라서 좋은 수익을 얻게 되니까 아주 기뻐요.”

- 응우옌 티 엑스 마을주민

그 밖에도 플랜은 지역개발 계획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빈곤층, 장애인, 여성, 아동과 같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손을 잡고 그들과 늘 함께 해주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고, 작은 의견들일지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더 나아가 공동체 사회를 위한 개발 계획에도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플랜이 타이 응우옌 지역에서 활동 했던 지난 10년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시간이었는지 늘 생각해요. 마을 사람들과 저의 친구들, 가족들을 대신해 제가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변화가 생겨나는 곳마다 늘 플랜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어요. **고마워요, 플랜!**

# 사랑 받고 사랑하는 법

후원 아동에서 플랜 직원으로 아름답게 성장한  
과테말라 엘리자베스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과테말라에 사는 엘리자베스(22세)는 여섯 살 때부터 플랜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플랜과 함께 성장해나가면서 아동권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후 플랜의 청소년 모임 활동을 통해 성 평등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서는 항상 저희에게 본인들이 갖지 못했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죠.”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플랜에서 지원하는 ‘프로텍션 네트워크(Protection Network)’에 참여하면서 육아 관련 상담을 받고 자녀들의 권리에 대해 먼저 배웠습니다. 덕분에 엘리자베스가 성장하여 플랜의 청소년 모임에 참여했을 때에도 반대하지 않고 흔쾌히 지지해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또래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소녀들의 권리를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춘기 시기에 여자로서 경험할 일들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아 매우 두려웠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자베스는 성 평등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녀가 10대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도 아무도 성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알려주지 않았고, 다행히 플랜에서 성교육과 생식 건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의 소녀들은 대부분 성 관련 지식을 제대로 얻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열세 살 나이에 남자 친구와 동거를 하거나, 한창 학교에 다녀야 할 열일곱 살의 어린 나이에 아무 준비도 없이 세 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플랜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저도 친구들과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었을 지도 몰라요.”

엘리자베스는 더욱 열심히 플랜의 청소년 모임 활동에 임했습니다. 다양한 워크숍에 참석해 가족과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배우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소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청소년 모임의 대변인으로 지역 행사에 참석해 가정 폭력이나 조혼으로 여자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주위의 관심과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플랜으로부터 6년 여 동안 장학금을 지원받은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잘 마칠 수 있었고, 이후 대학교에 진학해 미래를 위한 탄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테말라 플랜 사무소에서 후원아동 관리부서 직원으로 일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나누는 중입니다.

“저는 플랜에서 일하는 것이 좋아요.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후원아동과 후원자님들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되거든요. 또, 플랜의 여러 가지 활동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과테말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삶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사명감을 느껴요.”

플랜으로부터 사랑 받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엘리자베스는 심리학자가 되기 위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억압받고 원치 않는 현실에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머지않아 그녀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 꿈을 이루게 해 준 플랜,  
그리고 다시 또 꿈꿀 수 있게 해 준 플랜,  
정말 고맙습니다.”

# 똑똑똑,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필리핀에 사는 '발렌'으로부터 도착한 편지를 소개합니다. 치킨과 소시지를 좋아하고 만화책을 즐겨보는 한창 장난기 가득한 소년이지만, 후원자님을 향한 깊은 진심이 느껴지고 한국에 대해 무척 궁금해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66  
2018년에도 후원자님과 후원아동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편지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후원아동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99

66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동사마르에 살고 있는  
12살 발렌 플로레스입니다.  
99



## 발렌의 편지

**안녕하세요!**  
**얼마 전 후원자님의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뻐어요.**  
**언제나 저를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요.**  
**나중에 커서도 이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항상 간직할 거예요.**

저는 지난 짧은 방학 동안  
플랜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파티와 가정의 날 행사에 참석했어요.  
두 가지 실내 게임에 참여하고 많은 상도 탔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고  
기후 변화 캠페인에 대해서도 알게 된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만화나 책을 읽는 게 즐거워요.  
필리핀 단편들을 주로 찾아보는데  
이해하기도 쉽고 재미도 있어요.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에 갈 필요는 없어요.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덕분에  
집으로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혹시 후원자님도 독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후원자님과 후원자님께서 살고 계신 곳이 늘 궁금해요.  
기회가 된다면 꼭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후원자님의 다음 편지를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발렌 드림



## 후원자의 답장

### 보고 싶은 발렌!

네게서 또 한번의 답장을 받게 되어 아주 기쁘단다.  
편지를 보내고 나면 항상 답장을 기다리게 되거든.  
나 역시 발렌이 보내준 편지와 사진을 모두 모아서  
잘 보관하고 있어.  
언젠가 같이 꺼내어보며 마주할 날이 오겠지?

나도 발렌처럼 책 보는 걸 좋아해.  
그래서 가끔씩 공공도서관에 가서 무료로 빌려보거나  
서점에서 직접 구입해서 보기도 해.  
나는 주로 에세이나 소설 종류를 좋아해.  
쉽게 읽을 수 있거든.  
그리고 보니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가 많네!

한국은 이제 초여름이라 많이 더워졌어.  
필리핀도 많이 덥겠지?  
발렌은 곧 여름방학을 맞이하겠구나.  
방학하면 책은 잠시 내려놓고 친구들과 맘껏 뛰어 놀렴.  
나중에 곱씹어볼 수 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

오늘 우리 집에서는 김치를 담갔어.  
한국에서 김치는 보통 겨울에 담그는데  
김치가 일찍 다 떨어져서 급하게 조금 담았단다.  
배추를 소금에 절인 뒤 빨간 고춧가루로 양념을 해서  
반찬으로 먹는 건데 약간 맵긴 하지만 정말 맛있어.  
한국에서는 김치 없이 밥을 먹는다는 건  
거의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단다.  
필리핀에도 그런 음식이 있겠지?

다음 편지에서는 한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줄게.  
다시 답장이 도착할 때까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발렌, 그 때까지 잘 지내!



### 후원아동에게 편지 보내는 방법

- 이메일: letter@plankorea.or.kr
- 우편: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31 H스퀘어 S동 912호 플랜코리아 (우:13494)

\* 한글 편지 20일, 영어 편지 25일까지 도착 시 당일 말일 발송합니다. \* 편지 선정 시 후원자님께 연락을 드려 공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 편지가 소개된 후원자님과 후원아동에게는 소정의 The 좋은가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 플랜톡



플랜은 언제나 후원자님과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관심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아동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그 날을 위해  
늘 후원자님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원하게 답변해드릴게요!

## Q1. 후원 아동의 성장보고서는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후원 아동의 성장보고서는 후원자님과 후원 아동이 결연을 맺는 시점으로부터  
약 1~1.5년 가량의 주기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장보고서는 해마다 성장하는  
후원 아동의 사진과 근황, 후원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 모습과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소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원 아동의 사진 및 근황은 플랜 현지 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아이의 가  
정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후원 아동 또는 가족의 부  
재, 열악한 현지 사정과 사진인화 및 검수 작업 등으로 인해 전년도 발송 시점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7년 4월부터는 성장보고서를 비롯하여 후원아동 관련 우편물 발송 시, 사  
전에 문자와 알림톡으로 모든 후원자님께 발송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및 앱에 업로드 된 성장보고서를 통해 언제 어  
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 시에는 우체국 일반 보통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체국 오  
배송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플랜코리아 측으로 요청해 주시면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 가능합니다. 주  
소 변경 및 기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못 받으셨더라도 언제든지 재발송  
이 가능하니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플랜코리아는 모든 후원자님들께서 후원 아동의 성장보고서를 신속  
하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Q2. 후원아동이 편지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플랜에서는 후원 아동들에게 편지 작성을 권유하고는 있으나, 아동보호 정책에  
따라 강요하지 않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동이 너무 어려서 글자를 모르  
거나 편지 쓰기를 어려워할 경우에는 아동이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지 자  
원봉사자 또는 부모님이 편지를 대신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 때 받아 보시는 편  
지에는 어떤 사람이 편지를 대필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과 후원아동의 편지는 모두 정기적으로 일대일 아동방문을 통해 전달  
및 작성이 됩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우편 체계가 열악하고 날씨와 환경  
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동이 편지를 받기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리  
며, 후원자님께서 후원 아동의 답장을 받기까지도 다시 동일한 정도의 오랜 시  
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전 세계 75개국 플랜 사무소에서는 후원자와 후  
원 아동의 더 나은 교류 및 관리 방안 강화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님께서 보내주시는 편지에 대해 후원 아동들이 빠른 시일 안에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후원 아동 대상 교육 활동을 점차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현장 투입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시는 격려와 응원의 편지는 후원 아동들이 답장을  
쓰거나 아동 후원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 아동에게 보내는 편지와 관련해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은 이번 호에  
함께 실린 플랜툰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지에 마음을 담아  
후원 아동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우편

일반 편지지 또는 플랜 편지지에 편지를  
작성한 후 플랜 사무실로 우편 발송



이메일

이메일로 아동에게 편지를 써서  
플랜 이메일 주소로 발송



홈페이지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플랜' ▶ 1:1 상담하기 내 해외결연  
▶ 편지쓰기에서 편지 작성 가능

\* 편지 상단에 후원아동번호, 후원아동이름,  
후원아동국가, 후원자번호, 후원자이름,  
후원자국가를 반드시 영문으로 적어주세요.

\* 플랜 편지지는 플랜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후원 아동에게 보낸 편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원아동에게 보내는 선물,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최근 수입국의 화물보안 강화 정책과 시시각각 변하는 세관법으로 인해  
운송료와 관세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원아동에게 보내는 선물의 기준과 발송 정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 발송 가능 품목 >

- 종이류, 규격 A4사이즈 봉투에 넣을 수 있는 크기, 두께 3cm이하
- 사진, 얇은 노트나 메모지, 스티커, 색종이, 종이지도 등 종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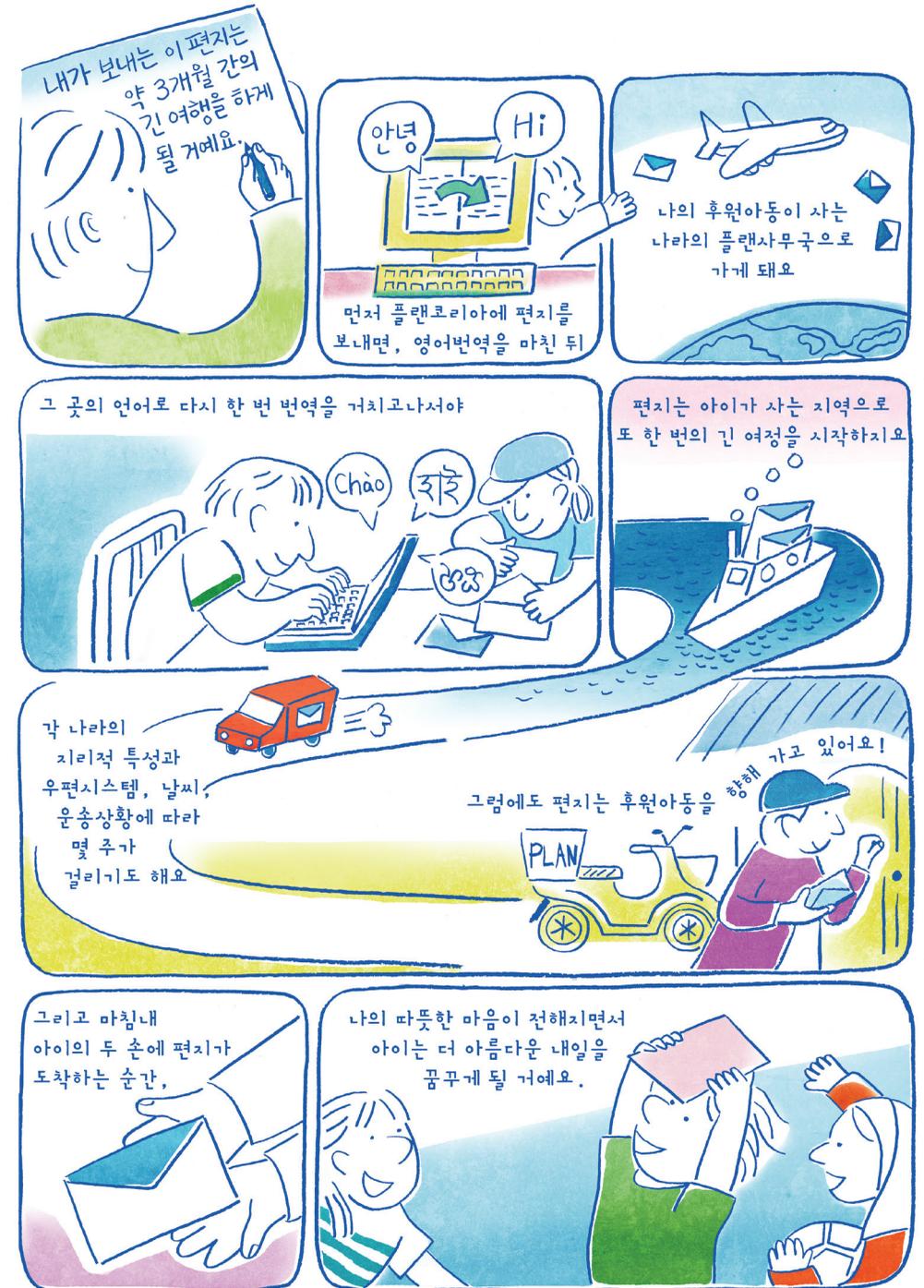
선물의 무게와 부피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운송료와 관세를 후원자 부담으로 발송합니다. 발송 진행 여부와 운송료는 후원자님께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며, 관세는 선물 가격과 운송료에 상관없이 100달러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 부담 발송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보내주신 주소로 반송처리 해드리며 반송비 또한 후원자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경사항에 대해 후원자님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운송료와 관세가 부담되는 후원자님들을 위해 플랜코리아에서는 매 연말마다 꾸러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꾸러미 이벤트 중 발생하는 운송료와 관세는 플랜코리아가 모두 부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기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Plan Toon

-2화-



\* 후원자님이 써주시는 편지는 후원아동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에게 마음을 전해주세요.  
\* 매달 한글편지는 20일, 영어편지는 25일까지 플랜코리아로 보내주시면 번역을 거쳐 말일에 항공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소식지를 이메일로 받고 발송비를 절감해주세요.

소식지를 이메일로 받으시면 인쇄비, 발송비, 주소불명 등으로 발생하는 처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감된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이 후원아동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별써 많은 후원자님들이 참여해 비용을 절약했습니다.

**'소식지 이메일로 받기', '개인정보 수정하기'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 2019년 봄호 소식지부터는 모든 소식지가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 참여 방법 >

- ▶ 홈페이지 마이플랜 로그인 > 회원정보 설정 > 1.기본 정보 > 소식 수신 > (우편물)해제
- ▶ 플랜코리아 앱 로그인 > 설정 > 회원정보 설정 > 1.기본 정보 > 소식 수신 > (우편물)해제
- ▶ 전화문의 : 1544-3222

플랜코리아  
모바일 앱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 아름다운 동행

플랜코리아는 후원자님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 공간은 오직 후원자님들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나의 이야기, 독자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누군가의 사연,  
기부와 후원에 앞장서고 있는 개인 사업장 및 기업 소개, 플랜코리아와 소식지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또 다른 무엇으로도 모두 좋습니다.

후원자님이 만들어가는 페이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 참여 방법 >

의견 작성 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 또는  
이메일 발송



#### 참여방법 1

카카오톡에서 '플랜코리아'를  
친구 추가한 후,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전송



#### 참여방법 2

plan\_people@plankorea.or.kr  
사진 또는 파일 첨부하여  
메일 발송

# Enjoy Plan

'또 하나의 나, 우리'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

## 틀린그림찾기



1 틀린 그림(5개)을 눈에 띄게 표시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2 카카오톡에서 '플랜코리아'를 친구 추가한 후,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전송!



< 지난 호 정답 >

정답 및 당첨자는 가을호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2018 봄호 인조이플랜 당첨자 송성영(인천), 유성민(서울), 최은화(인천), 우승희(수원), 정소영(부산)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플랜코리아 소식

#### 인도네시아 · 필리핀 세이프스쿨 지원사업 성공적 종료



플랜코리아가 미래셋대우, 코이카와 함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진행해온 세이프스쿨 3차년도 사업의 성공적인 종료를 축하하며 완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3년간의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지역에서는 국가 세이프스쿨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 건물과 위생 시설이 구축되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게 됐다. 또한, 갑작스러운 재해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내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 대비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다.

#### HSBC 여성위원회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후원금 전달



HSBC코리아 여성위원회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플랜코리아에 국내 저소득 아동 교육 지원 사업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HSBC코리아 여성위원회는 7년째 매년 여성의 날마다 후원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여성위원회의 후원금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후원금까지 더해 아름다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후원금은 국내 저소득 가정의 아동 교육 지원 사업 가운데 다문화 가족 여학생 학부 구입에 쓰이게 되며, 임직원들의 후원금은 학용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 삼성전자 임직원 가족과 나눔의 의미 찾은 소중한 시간



어린이날을 맞아 삼성전자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나눔 체험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아동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플랜코리아 김대희, 백진희 홍보대사가 아이들과 직접 물동이 옮기기, 포토 이벤트 등에 참여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끌었고, 2012년부터 1004명의 아이들을 후원 중인 삼성전자와 결연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되었다.

#### 아쿠아리움 매너티, 서아프리카 아동 위한 변함없는 약속



귀여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쿠아리움의 상징 매너티가 아프리카 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플랜코리아와 아쿠아리움은 매너티가 전하는 후원금의 의미를 더하고 더욱 많은 후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로 9년째 해마다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매너티는 지난 2009년 플랜코리아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기니 등 자신의 고향인 서아프리카 지역 어린이 10명을 후원하며 꾸준히 후원금을 전하고 있다.

#### 현대건설, 재난안전 분야 사회공헌 활동 추진



플랜코리아가 현대건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사회적기업 블루인더스와 재난안전 분야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문 사회공헌 기업과 기관이 협력을 통해 각자의 전문 역량을 발휘하고, 재난 안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을 통해 플랜코리아와 현대건설은 재난 안전 위기 지역 내 안전 교육·재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재해 상황에 사전 대비하는 재난대피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실시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펼치게 된다.

#### 전미선 홍보대사 '친정엄마와 2박 3일' 객석 나눔 실천



전미선 홍보대사가 주인공으로 10년째 열린 중인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에 플랜코리아 후원자를 초청해 객석 나눔을 실천했다. 해마다 잊지 않고 객석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전미선 홍보대사는 공연 후 직접 후원자들을 만나 후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나누면서 나눔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해나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실천해온 객석 나눔은 서울, 인천, 천안, 창원, 대구, 전주, 용인, 구미 등 8개 지역에서 플랜코리아 후원자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플랜지구촌 소식

#### 방글라데시 아동의 조혼을 막는 애플리케이션 효과



방글라데시 아동의 조혼을 근절하기 위해 출시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국가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미성년자 여아들의 50% 이상이 결혼을 강요당하고, 실제로 3명 중 2명의 소녀들이 만 18세 이전에 조혼과 임신으로 고통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는 플랜과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그 결과 6개월의 조정 기간을 거쳐 약 3,700건 이상의 미성년자 결혼을 중단시켰다.

#### 베트남 소녀들의 성폭력 문제 담아낸 단편영화 제작



플랜 베트남을 통해 영화 제작에 참여한 적 있는 베트남의 두 여고생이 베트남 소녀들이 겪고 있는 성폭력 문제를 담아낸 단편 영화를 직접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는 열살 소녀가 학교 보안 요원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영화를 만든 여고생들은 영화를 통해 성폭력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여아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여아들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필리핀 투클라 연구소, 재난대비 혁신 프로젝트 발표



필리핀 투클라 혁신 연구소가 필리핀 17개의 지역으로부터 260가지 자연재해 대비 제안서를 받고, 최종적으로 40팀의 제안서를 채택했다. 필리핀어로 '발견'을 의미하는 투클라는 자연재해 위험 감소 및 관리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혁신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각 팀들은 최근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대비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2018년 11월까지 100만 페소의 초기 투입 자본과 교육 및 멘토십을 제공받는다.

#### 여학생과 젊은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안전지도 출시



플랜이 전세계 주요 도시 다섯 곳에서 소녀와 젊은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 안내하는 온라인 안전지도도 출시했다. 여학생들과 젊은 여성들은 안전함을 느끼는 도시는 '중요요'를,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도시에는 '나빠요'를 선택할 수 있다. 도시에서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각 도시가 좋고 싫은 이유도 익명으로 기재 가능하다. 플랜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이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파악하고,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책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 짐바브웨 여아 교육을 위한 보조금 900만 파운드 지원



플랜 짐바브웨가 플랜 인터내셔널로부터 960만 파운드 상당의 '여학생 지원 교육'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 보조금은 짐바브웨 여학생 21,780명의 교육권을 지키고, 누구든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쓰일 예정이다. 특히 빈곤으로 고통 받거나 장애를 지닌 여자 아이들도 더 이상 소외 받지 않고 평등하게 배우고, 이끌고, 결정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플랜 짐바브웨 관계자는 보조금을 통해 소녀들의 권리 신장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 플랜 베냉-유엔연구기금, 보건서비스 개선 파트너십 협약



플랜 베냉이 유엔연구기금(UNFPA)과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 유엔연구기금은 베냉 지역의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생식 보건 의료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유엔연구기금은 정부 통계 정보 시스템 및 국가 역량 강화를 돕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 및 성 평등 사회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 플랜과 유엔연구기금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베냉의 소녀와 젊은 여성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및 생식 건강 서비스를 꾸준히 장려해나갈 계획이다.



# 나는 더욱 행복해질 거예요

작고 어린 네 살 소녀 레이가 플랜의 유아 보육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드디어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직 한참 어리다는 이유로 온 종일 집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레이와 같은 5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소외 받고 있습니다.

삶의 뿌리가 결정되는 유년시절은 한 생명의 인생이 달린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아이들이 나이, 성별, 환경에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꿈꾸며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선물해주세요.

아이들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 The 좋은가게



Hot Item 1

심심했던 내 책상, 귀여운 플랜 마우스패드로 장식해보세요!



귀여운 플랜 아동사진과 BIAAG 캠페인 로고로 제작된 마우스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취향에 맞게 구매하셔서 책상을 예쁘게 꾸며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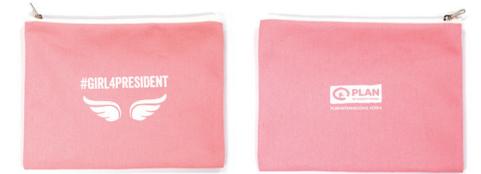
크기: 220x175x1mm, 재질: PVC  
옵션: Because I Am A Girl, Plan Africa

3,000원



Hot Item 2

언제 어디에서나 활용도 만점! 플랜 BIAAG 캠페인 파우치



더좋은가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의 'Because I am A Girl' 파우치가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넉넉한 사이즈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후원아동에게도 발송 가능합니다.  
크기: 215X150mm

6,000원

< 지금 더좋은가게에서 만나보세요 >

## 후원아동을 위한 추천 선물! '3D입체퍼즐'을 구매해보세요.

더좋은가게 상품 수익금은 플랜인터내셔널을 통해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환경 개선과 교육 및 보건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런던브리지



포크레인(굴착기)



카페

더좋은가게는 단체, 학교, 기업과 함께 협력상품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The 좋은가게 www.planshop.co.kr 02.516.5107

##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후원으로 어린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서

이름 (한글)  (영문)   남  여  
연락처  e-mail   
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회원등록, 소식제공,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해외아동결연후원 (월 3만원)

저는  명의 아동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희망지역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성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  남자어린이  여자어린이

서신교류언어  한국어  영어

#### 특별정기후원 (월 만원)

지원분야  해외사업  국내사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아동 개인정보 수집 보호자 동의)  동의함

관계 법정대리인 (서명)

#### 후원금결제방법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따로 연락을 드려 세부 내용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19호)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ID 플랜코리아로 보내주세요.

후원문의 ☎1544-3222 ✉kno@plankorea.or.kr 🌐www.plankorea.or.kr



지구촌 아이들의 꿈  
플랜코리아